

□ 정부시책 □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종합계획 마련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 등으로 각종 투자관련제도개선이 일단락되고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본격가동체제구축, 외국인투자지원 예산 1,000억원의 확정 등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앞으로의 투자유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총괄부처로서 외국인투자유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의 실적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와 최근 변화된 국내의 투자환경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투자유치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투자유치체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먼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의 관련 국장으로 구성되는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위원장 : 산자부 무역정책실장)를 활성화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종합·관리해 나가는 한편, 산업자원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효율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내에 무역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양한 투자유치 세일즈활동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의 투자유치 활동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대규모 사절단 파견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큰 타겟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유치하는 전략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세계 500대 기업과 우수 기술보유 기업중 對韓投資 잠재력이 높은 200여 개 기업을 전략적 타겟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방문(Company Visit)을 통하여 발로 뛰는 유치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APEC FDI Mart를 개최('99. 6)하여 역내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선진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박람회, 전시회 등에 투자홍보관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등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종합정보망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99년 5월까지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최신·최적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외국인투자종합정보망을 완비함으로써 투자정보의 검색과 상담, 거래알선(Match-Making)등 투자관련 모든 업무를 사이버 공간에서 On-Line 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Key Audience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홍보활동 추진을 위해

금년도 투자홍보의 내용은 제도개선, 경제환경 위주로 작성되어 일반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일방통행적인 홍보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외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Key Audience로 선정하여 집중 홍보하는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홍보활동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잠재적인 외국인투자자, 투자 분석가 및 외신기자, 주요 언론인 등 20,000여명을 선정, D/B화 하여 이들의 주요 관심사를 수시로 Monitoring하고, 홍보대상의 수요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투자환경을 정확히 알리고 실질적인 투자자로 유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투자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기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에 대한 증액투자 가능성이 큰 투자자임을 감안, 상시 애로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애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 외국인투자자들이 같은 나라의 기투자기업을 투자결정시 상담자로 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성공한 외국인투자자를 산업자원부의 투자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이들의 의견을 투자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한국의 투자환경 홍보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선진국의 투자유치제도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현행 체제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투자유치체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산업자원부, 中企에 10조 지원

산업자원부는 21세기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생물·신소재 등 27개 지식기반 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까지 2만5천개 업체에 총 1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6일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공업발전심의회'

를 개최하고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위해 직접금융 활성화, 벤처금융 확충, 신용대출 정착 등을 통해 신산업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 신산업 창출에 핵심이 되는 103개 기술과제를 중점 개

발해 나가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산업기술단지, 첨단과학단지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지식산업집적지를 조성, 지식산업 창출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또 효율적인 산업조직의 구축을 위해 분사화 및 전문화를 촉진토록 내년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대기업 구조개혁의 정착 및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5대 기업집단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산자부는 자동화·정보화 등 구조개선을 촉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02년까지 5년간 2만5천개 업체에

총 10조원을 지원, 구조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21세기형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벤처조합의 재원 확충 등을 통해 벤처창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우수인력과 입지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 조립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간 전속·배타적 도급구조를 개방적 네트워크로 전환, 부품 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조립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에 대해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시행계획

중소기업청은 '99년부터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순수운전자금 성격의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여 지원('99년 예산: 4,000억원)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同 자금은 IMF 이후 경기침체 및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운전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자금으로서,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시설자금 일변도였던데 반하여, 처음으로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정규사업으로 신설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모든 범위의 중소기업을 그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하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한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자금의 지원대상을 ① 수출유망기업, ② 벤처기업, ③ 기술력 및 품질 우수기업, ④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범위화 하여,

수출유망기업의 경우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대상기업,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기업 등을,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을,

기술력 및 품질 우수기업의 경우 각종 품질 인증 획득기업,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기술우수기업 등을,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 및 기술관련 수상기업, 중소기업 공동상표 참여기업, 지역특화산업 참여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각 기관 선정 유망중소기업 등을 세부지원대상으로 포함하게 된다.

위의 지원대상 이외에도 중소기업정책상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특별자금)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일반자금은 제도금융권 이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서 원·부자재 구입, 완제품 제조, 국내외 판로개척, 기술 및 경영혁신, 개발기술의 사업화, 시설 도입 후 초기가동 등 일상적인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특별자금은 받을어음의 부도,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매출액 감소, 거래금융기관 및 거래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자

금수급 불균형상태에 처한 기업으로서 자금지원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99년중 자금의 총 지원규모는 4,000억원으로 이중 일반 자금에 3,700억원이 배정되고, 나머지 300억원은 특별자금에 배정되어 금융기관 자체자금과의 matching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자금의 경우 연리 9~10%, 특별자금의 경우 11% 수준으로 지원되며, 만기는 거처기간 포함 3년 이내로 업체당 5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특별자금의 경우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는 경우 업체당 평균 1~2억원씩 '99년중 총 3,200개 업체(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체의 3.3% 수준)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대 그룹의 사업맞교환이 급진전됨에 따라 협력중소업체의 자금난 가중에 따른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초 대기업 협력중소제조업체로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도 자금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대기업 구조조정의 무리없는 추진과 협력업체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청, '99년에 총 13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

중소기업청은 은행연합회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장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지원 위원회를 개최하여 '99년도에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신규로 총 12조5천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일부 우량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량·일반중소기업간 자금 양극화 현상은 도리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상업어음 할인 실적과 신용대출 실적이 축소된 것으로 보고 되었고, 향후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의 확대 및 여신관행의 혁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의 구축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99년도에 신규로 총 13조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한편,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벤처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특별법상의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인

정하고 있는 총액한도대출 우대지원(대출실적의 1.3배 인정) 대상에 EM, NT 마크 및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센터가 선정한 우수기술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한국은행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감안하여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심사시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의 평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은행과 기술신보가 협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각 은행별로 전문심사역제도 및 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등)의 구축 등 선진금융기법을 적극 도입키로 하였다.

- \* credit scoring system 기도입 은행 : 보람은행
- \* 영업점별 전문심사역 배치 은행 : 한미은행

또한, 중소기업청이 '99년도에 순수 운전자금 용도로 조성·지원키로 한 경영안정자금(4,000억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는 한편, 특히 천재지변·거래기업의 부도나 위탁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게 되는 경우에

지방중기청을 통해 지원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600억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하였다.

## 중소기업청, 수출유경험자 현장에 파견지원

중소기업청은 IMF체제 이후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상사 등에 근무하면서 많은 수출 경험을 쌓은 퇴직 수출유경험인력을 내년부터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수출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수출전문인력을 500명 이상을 1차로 모집하여 '99년부터 중소기업체에 파견지원을 개시하여 연간 4,000여 업체에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간 중소기업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도 수출실무지식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나 해외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수출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종합상사, 무역대리점, 금융기관 등에서 실직한 수출관련 고급인력은 많으나 이들 전문인력을 위한 실업대책은 미비하여 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고 창업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전문인력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무역금융, 디자인업무 등 수출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실직자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체의 배정은 개별업체의 수요를 파악해서 할 예정이다.

- 신청 및 접수는 각 지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지방중소기업청내 소재)에서 12월 21일부터 받고 있으며, 업체파견은 '99년 1월 11일부터 시작한다.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수출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면 모두 대상이 되며, 수출지원센터에 신청을 통해 평균 1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파견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업체의 부담은 전혀없다.

- 중소기업체는 수출실무 컨설팅에서 바이어 알선, 계약체결 등 수출관련 애로 및 지원수요에 대해서는 분야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의 애로해결을 원할히 하기 위해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밀착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분야의 수출전문인력을 한팀으로 구성하여 한  
개팀이 업체를 밀착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 한국산업

단지공단과 협의하여 공단내 수출상담실을 마  
련하여 무역상담과 현장순회 컨설팅 업무도  
점비하여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